



#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주일에배 설교 음성서비스

Apple Podcasts 팟캐스트

Spotify 스포티파이

팟빵 오디오클럽



## 김정석 담임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대 감독회장으로 압도적 득표로 당선

지난 9월 26일에 있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본 교회 김정석 담임목사가 제30대 감독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21대 감독회장을 지낸 고(故) 김선도 감독에 이어 광림교회에서 두 번째 감독회장이 탄생한 것이다.

### 김정석 담임목사가 걸어온 길

김정석 담임목사는 존 웨슬리 신학에 뿌리를 둔 서울신학대학교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한 후, 미국 애즈베리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 강화 에덴교회와 광림교회에서 목회했으며, 2001년 광림교회 6대 담임목사로 취임 후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했다. 국제회의, 세계 선교 등을 통해 광림교회를 넘어 세계적 리더로 주목을 받아오던 중, 2020년 서울남연회 제 16대 감독으로 선출되어 2022년까지 서울남연회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였다. 특별히 재임 시절 조성한 웨슬리 선교기금을 통

해 현재까지 서울남연회에 소속된 모든 비전교회는 매월 선교기금을 후원받고 있다. 이는 감리교회의 특징이자 장점인 연결주의와 공공회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타 연회에 모범이 되었으며, 감리교회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차별 금지법 독소조항 폐기, 사학법 개정 등 사회적인 문제와 월드비전 이사로서 국제구호 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CBS 이사, 영국 캔브리지 웨슬리하우스 국제이사, 미국 웨슬리 신학대학 이사로 섬기며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

김정석 담임목사는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권유로 뒤늦게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압도적 지지율(57.38%)을 얻어 역대 최다 득표율로 제36회 총회의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그동안 국내 11개 연회에 속한 젊은 목회자, 여성 목회자, 이종직 목회자, 평신도 단체 등

과 소통하며 현장의 소리를 들어왔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세웠으며,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또 직접 찾아가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설명했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마음에서 진정성을 찾으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이 늘어났다. 제천, 대구, 대전, 서울에서 있었던 네 번의 합동정책발표회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의 "정책을 말로만 그치지 않고 꼭 실현하겠다"는 진정성 어린 발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기대가 되는 정책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 된 감리교회"라는 구호 아래 '희망, 동행, 도약'의 정책 발표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어냈다. 감리교회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미래 목회에 대한 제안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했으며, 지역 교회 현실에 맞는 정책에 목회자와 평신도의 호응이 높았다. 정책의 큰 주제는 아래와 같다.

- I. 다음 세대
    1. 교회학교를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
    2. 청년과 청장년 부흥에 대한 관심
    3.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순조로운 설립과 미래 목회 전문가 양성
  - II. 미래를 위한 준비
    1. 감리교회의 정책 연구소 설립
    2. 본부 역할 조정 및 행정의 혁신
  - III. 목회자 은급 및 복지
    1. 은급비 인상과 안정화
    2. 목회자의 복지를 책임
- ... 3면에 계속



# 은혜로 주어진 다시 한번의 기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눅 13:8)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삼 년씩이나 와서 보았는데 매년 열매가 없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2년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열매가 맺어지고 5~7년 사이의 열매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무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목재를 얻기 위해 기르는 나무가 있는 반면, 어떤 나무는 단순히 썩 감용으로 기르고, 어떤 나무는 순전히 열매를 얻기 위해 기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데 있습니다. 존재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곧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가치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목적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 첫째,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주인은 3년 동안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것을 기다렸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물과 거름을 주고 그리고 가꾸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 과수원의 주인은 나무를 베어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이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서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참으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백성, 집을 나간 탕자 등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을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더 나아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시킬 때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

**누가복음 13:6-9**  
6.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7.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것은 은혜를 허비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다시 돌아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야 말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 둘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의 과수원 지기는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8절)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은혜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과수원 지기는 비록 지난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지만, 다시금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면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가능성, 잠재적 능력을 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당장의 열매는 없지만, 다시금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도 은혜로 주어진다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의 믿음입니다.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라는 말씀처럼 가능성의 믿음은 단순히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돌아올 때 그 속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짐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가능성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에 걸맞는 열매가 없거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여 버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게 만들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 안에 열매의 가능성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 셋째, 은혜로 받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8~9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과수원 지기는 나무에 대하여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종자가 나쁘다’, ‘나무에 문제가 많다’, ‘벌레가 많다’ 등 나무에 대하여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한 번의 기회가 생긴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수원 지기 때문입니다. 과수원 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 무화과나무의 수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과수원 지기는 무화과나무와 함께 하겠다고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수고하겠다고 합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며 그리고 물을 주어 정성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향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도 은혜로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돌아와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 1면에 이어

IV. 여성 및 평신도 역량 강화

- 1. 평신도 사역자와 전문인 선교사 육성
- 2. 평신도 인재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3. 신앙 성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 4. 여성 목회자와 지도자들의 권익을 높이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V. 국내외 선교와 감리교회 위상 강화

- 1. 비전교회와 도약교회 지원 및 선교의 다각화
- 2. 한국 감리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도록 준비
- 3.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높이는 데 주력

광림교회의 품위 있는 선거 운동

지난 7월 14일(주일) 저녁예배 후에 있었던 김정석 담임목사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추천 결의>를 위한 임시구역회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광림교회 성도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 속에서 감독회장 후보로 추대되었다. 이후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며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펴기도 했으나 "선거는 감리교회가 하나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끝까지 상대방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갔다. 김정석 담임목사와 광림교회 성도들이 보여 준 품위 있

는 선거운동은 다른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에 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감독회장 당선인 인사말씀

사랑하고 존경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가족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감리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 그리고 사회성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광림교회 성도님들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함께 경선에 참여해 주신 두 후보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노력 덕분에 신뢰와 화합 속에

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 된 감리교회를 위해 더욱 견고한 사랑과 신뢰로 서로를 품고, 서로를 치유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각 연회 감독님들과 함께 감리교회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평신도 단체와 함께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감리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리더 교회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성서의 진리와 교회의 가치를 지켜내는 감리교회,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감리교회,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제30대 감독회장 당선인 김정석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 제6회 광림 한마음 등산대회

빛의 숲 광림 가족축제, 10월 9일(수)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려

**제6회 광림 한마음 등산대회**  
**빛의 숲 광림 가족축제**

**일시**  
2024년 10월 9일(수) 한글날 09:00-16:00

**장소**  
국제 광림비전랜드

**대상**  
광림교회 전교인 및 새신자

**프로그램**  
찬양, 예배, 등산, 레크레이션

**행운권 추첨**  
참여자 분들께 행운권 추첨의 기회를 드립니다

**문의**  
광림실업인선교회  
02-544-4588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제6회 광림 한마음 등산대회가 10월 9일(수), 한글날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린다. 긴 무더위에 지친 성도들을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과 친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한마음 등산대회는 실업인선교회 주관으로 전교인과 새신자들이 참석하는 축제의 장이다. 한마음 등산대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본당과 지교회를 포함 37대의 버스가 교구별로 오고 가는 길에 운행된다.

성도들이 도착하는 오전 9시에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컷팅식을 가진 후 등산대회가 시작된다.

'부활 코스(A)'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비전랜드 축구장을 출발해 14개의 기도 조형물이 있는 부활의 동산, 물썰매장, 본관을 돌아오는 가벼운 코스고, '비전 코스(B)'는 약 2시간이 소요되며 비전랜드 정문을 출발해 북한산 공원 입구, 구암산 두리봉 등산로, 비전랜드 축구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등산 후에는 교구별 지정 장소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김정석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

는 기념예배를 드리고, 새신자 환영식과 인도자 시상식을 가진다.

이어서 전문 MC의 진행으로 어린이 장기자랑, 보물찾기, 퀴즈, 행운권 추첨과 가족 축제를 축하하는 공연 무대가 열려 참석한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그 외에도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풍성한 경품 추첨 등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께서 주실 기쁨과 감사의 비전을 한아름 안고 갈 이번 광림 한마음 등산대회는 광림교회 장로회, 남산교회총연합회, 여선교회총연합회 후원과 의료선교회, 기도은선교회와 각 기관들의 협조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밀레니엄공원과 구름다리, 교회 후문 등에서 하고 있다. 참석 성도들을 위한 경품 후원은 등산대회 직전까지 실업인선교회에서 받고 있다.

경품 후원 문의 : 광림실업인선교회  
(02-544-4568)

이상희 기자

## 포토 뉴스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  
10월 12일(토) 오후 4시,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남산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기도회가 열린다.



**여성교회총연합회 선교바자회**  
10월 15일(화) 밀레니엄공원에서 잠비아 미션센터 학사동·기숙사동 건축을 위한 선교바자회가 열린다.



**제26회 통일성취기도회**  
10월 17일(목) 전후방 각 군부대에서 통일성취기도회가 개최된다.

## 담임목사 동정



- 9/10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2강
- 9/15 외국인제자훈련센터 한가위 잔치
- 9/22 유아세례
- 9/24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3강
- 9/26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제30대 감독회장 당선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http://www.klmc.church)

# 풍성한 사랑 나누는 외국인제자훈련센터 한가위 잔치

9월 15일 사회봉사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과 흥겨운 시간



광림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을 초청해 국내선교위원회(위원장 서명관 장로) 외국인제자훈련센터 주관으로 9월 15일(주일) 한가위 잔치를 열었다.

한국에 와서 일하는 근로자와 학생 등 120여 명은 본당에서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중국, 러시아 선교회 회원들은 사회봉사관 컨벤션 홀에 모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봉사자들은 밝은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했고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들과 아이들도 기쁘게 인사하며 추석의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온 여러분을 초대해 추석의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은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리운 가족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기도 응답하심을 믿고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나누시길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가위 잔치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여선교회 후원으로 준비한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화기에애한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에는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가야금 연주자 지애리 권사가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로 한국의 전통음악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할 때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경청하며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가야금의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트리니티 찬양단의 난타 공연을 보며 흥겨운 안무와 신나는 북소리에 어깨를 들썩이며 박수로 호응했고,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았다. 모두가 기다리던 경품 추첨을 통해 남·여·실업인선교회, 나눔의 집 등 각 부서와 개인이 후원한 풍성한 선물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가위 잔치가 끝난 후 사회봉사관 컨벤션 홀에서는 뜻깊은 결혼식이 열렸다. 볼리비아

선교회 콩고 신랑 에르베와 신부 아네스가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의 주례로 하나

소현수 기자



# 사랑의 돌봄행사로 예수님 사랑 전해

9월 11일 새벽, 추석을 맞아 장천호 입구에서 선물 나눠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장재관 장로)는 9월 11일 오전 5시 30분부터 장천호 입구에서 추석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돌봄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황영재 목사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사랑의 봉사를 하는 사회사업위원회 회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오늘 찾

아와 주실 어르신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입구정역 지하철 도착 시간에 맞춰 한 두 사람씩 오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장천호 입구 골목길에는 어르신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매주 하던 행사가 격월에 한 번 하

는 것으로 변경되고 또 첫째 주 수요일에서 이날은 추석을 앞두고 둘째 주로 바뀐 상황이었지만 1시간 30분 동안 2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왔으며 이들에게 빵, 파스, 양말을 비롯한 여러 선물을 지급했다.

선물 중 성경 구절이 적힌 사랑 봉지는 김명진 권사가 10여 년째 지원하고 있는데, 김 권사는 “그동안 코로나와 사탕 수요의 감소로 중단되었던 광림평생대학(SEC)의 ‘사탕 포장 봉사반’이 재개되었다. 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작은 손놀림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구색을 갖춘 시니어 봉사팀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매년 추석과 설날 등 명절 때마다 어르신 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안병철 권사는 회사 직원 2명과 함께 봉사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받을 때 보다 베풀 때의 마음이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느낀다. 베풀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장재관 장로는 “사회사업위원회가 이웃 사랑을 펼치면서 남선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도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얼마 전에는 국내의 선교에 힘쓰는 청년선교국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앞으로 전교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내선교와 월드비전 등 해외선교 단체에도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 광림교회 청년부 2024 가을학기 L.T.S 개강



광림교회 청년부는 2024년 가을학기 L.T.S (LFC Training School)를 9월 21일(토)에 개강하였습니다. 이번 L.T.S는 9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8주간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청년들은 나사렛 성전에 모여서 One Thing Worship 팀의 찬양을 통해 은혜로운 시간을 가진 후 다양한 강의를 수강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L.T.S에는 청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와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용을 할 수 있는 강의, 또 다양한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강의들이 개설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구약 개론'과 '신약개론' 강의, 신앙인의 건강한 대인관계를 배울 수 있는 '의사소통 코칭'과 '크리스찬 연애와 결혼' 강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통기타 찬양 반주 8주 코스', '함께 만드는 성극', '좋은 글쓰기 수업', 'Jacobs Dining(쿠킹클레스)'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J.D.C.(예수제자캠프)를 통해 청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매일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예수

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연애와 결혼 강의를 진행하는 최인혜 자매는 "크리스찬 연애와 결혼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이성관을 세우고, 자신의 연약함과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하는 계기를 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세상적 관점과 오해를 하나님의 관점과 섭리로 전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이번 가을학기 L.T.S에 대한 소망을 나누었고, '좋은 글쓰기 수업' 강

의를 진행하는 김달인 형제는 "이번 '좋은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삶의 시편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번 가을학기 L.T.S에 대한 바람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L.T.S를 통해 광림의 청년들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다양한 은사를 개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9월 22일(주일), 2부와 3부 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17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제갈라희, (부)제갈경환, (모)윤소은



양정규, (부)양희근, (모)정소윤



강다울, (부)강민석, (모)이현아



강리아, (부)강민석, (모)이현아



박로희, (부)박영균, (모)최윤지



안아윤, (부)안산들, (모)홍석영



김준서, (부)김강호, (모)진민지



김우주, (부)김기남, (모)박선영



박시아, (부)박시현, (모)방미연



이봄, (부)이광현, (모)이승희



심라엘, (부)심태수, (모)김예랑



김하린, (부)김동일, (모)고은애



김아선, (부)김주연, (모)정보윤



박채은, (부)박중서, (모)박애리



정천영, (부)정해도, (모)이수연



이완, (부)이평준, (모)김정은



신한규, (부)신건희, (모)이안아



목회현장

# 접촉하지만 저항하는 선교의 장 BBCH홀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 한명인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의 논문집 『학문과 실존』에서 선교를 위한 태도는 '접촉과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사고하며 누리는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접촉을 시도하지만 저항하고, 저항하지만 접촉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를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행 17:16~34) 아테네(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도시 곳곳의 신상들 때문)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구원자인 저것들은 거짓이며, 예수를 믿으라고 맹목적으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회로를 선택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아테네 사람들과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라는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으로 복음을 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세상 문화의 접촉을 시도하지만 저항했고, 저항하지만 그 접촉을 포기하지 않았던 위대한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저항인데,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고전 1:18) 합니다.

광림교회의 문화 공간은 선교를 위한 세상과의 접촉점입니다. 광림아트센터는 2023년부터 선교를 위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극장의 대관과 대관 사이의 휴식기(약 2주 정도)에 문화를 방법론으로 한 예배를 시도한 것입니다. 접촉은 공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광림아트센터는 청년부의 달레트 팀과 문화적 내용을 예배에 담아 믿지 않는 젊은 세대들을 예배당이 아닌, 교회 안의 공연장으로 초대하는 '사랑에 대하여'라는 콘서트

형식의 예배를 기획 실행했습니다. 당시에 6백여 명 참여자들 가운데 약 70명의 새신자들이 전도됐고, 일부는 청년부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달레트 팀은 문화라는 접촉점으로 복음을 전했고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달레트팀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에 타협하지 않는 저항하는 사역팀입니다.

다시 2024년 10월 27일 주일에 BBCH홀에서 가정예배자 유튜브 '임재배달꾼'과 함께 콘서트 위임을 달레트와 함께 기획하며 접촉을 시도합니다. 임재배달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망을 찬양의 가사로 쉽게 풀어 복음을 전하는 팀입니다. 청년부 달레트 팀 그리고 광림아트센터는 세상에 접촉하지만 저항하고, 저항하지만 접촉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서정일 목사(광림아트센터)

광림남교회

## 완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청년부 FLOT 선교팀의 선교 이야기



지난 8월, 광림남교회 청년부 선교팀은 대전으로 2박 3일(8월 8일 ~ 10일)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위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가장 완전하고 선하게 이끌어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선교는 교육선교팀, 외부사역팀, 지원사역팀으로 나뉘어 대전 지역의 10개 교회 30명의 아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사역과 교회의 페인팅 등 시설을 보수하는 사역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원사역 팀원으로 섬기게 되어 선교팀의 식사를 담당하였는데, 주방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음식을 계량하는 것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 덕분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고, 필요한 순간마다 돕는 손길이 있었기에 사역에 더욱 기쁨이 있었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에는 물놀이 시간에 우천이 예보되었지만, 기도한 덕분에 감사하게도 좋은 날씨 또한 허락되었습니다. 선교팀의 기도 뿐 아니라, 이번 교육선교를 위해 물질적

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선교 후에는 청년부를 섬기고 계신 선영진 목사님께서 제안해주셔서 '청년들을 위한 일일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청년들과 함께 광림남교회의 금요일예회의 밤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선교 기간에는 선교를 위해 다른 교회와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었다면, 일일부흥회 때는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말 그대로 '청년을 위한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특별한 집회에 참여하거나, 특별 게스트를 초대해서 연 거창한 기도회가 아니었지만, 선교를 하며 힘들었던 마음에는 위로를 얻고,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 다시 채워지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는 주수진 자매, 이다정 자매가 맛있는 간식까지 나눠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부가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걸음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윤준서 성도(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 전교인 한가위 잔치

울놀이 대회로 성도가 하나 된 교제의 장



광림북교회는 9월 22일(주일) 오후 1시, 은혜와 기쁨 가운데 '2024 전교인 한가위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71교구 남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된 전교인 한가위 잔치는 각 선교회별 울놀이 대회로 진행되었고, 71교구 4개 남선교회, 10개 여성교회, 그리고 아동부와 중고등부 2개 부서의 참여로 약 9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전교인 한가위 잔치는 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3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간 만남의 교제가 적었던 차에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하는 장이 되었고, 특별히 2024년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을 초청하여 새가족들이 기존 성도들과 알아가는 장이 되었습니다. 총 16개 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울놀이 경기를 치렀고, 1등은 루디아1선교회에서, 2등은 에스더3선교회에서, 3등은 스테반선교회에서, 4등은 아동부에서 차지했습니다. 부상으로 1등에서 4등까지 선교회 식사 상금을 받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품 추첨 시간에는 총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모였고, 북교회 성도들 중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 식사 상품권이 협찬되었습니다. 경품 추첨을 통해 대부분의 참

가자들이 경품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교회 여성교회 연합회에서는 다과를 섬겨 주셨고, 목회자들은 일일 바리스타가 되어 커피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한 이번 전교인 한가위잔치는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금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71교구 임양재 권사는 "참 행복한 교회,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시간을 보시며 좋아서 웃으셨을 것"이라며 "앞으로 북교회가 주 안에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 남성성가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계수련회

경기도 가평 별바라기마을에서 하나 된 뜻깊은 시간



지난 8월 31일(토) 남성성가단(단장 박동호 장로)은 경기도 가평군 상판리 별바라기마을에서 성가단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성가단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테마가 있는 곳을 찾아 지적 충전과 함께 예배를 통해 영적 목마름을 해소해 왔는데, 올해는 서울에서 비교적 가깝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대표적인 '소멸 위험지역'인 상판리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일행은 먼저 1km 가파른 길을 올라 출렁다리 입구, 오름 계단에 뽕뽕이 앉아 예배를 드

렸다. 맑은 새소리, 푸른 봉우리, 산뜻한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을 보면서 먼저 다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불렀으며, 이어 성가단의 선임 성은경 장로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성경구절과 함께 말씀을 전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서신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게바(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기둥 같이 여긴다고 했다. 바울은 이들이 겸손과 믿음이 확실한 튼튼한 기둥이라고 여겼다. 아울러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고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성성

가단 단원들도 모두가 겸손과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기둥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예배 후에는 별바라기 체험 마을에서 커피농장의 드립 커피 체험과 이곳의 포도를 이용한 포도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했다. 이런 곳에 누가 찾아올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2025년까지 예약이 잡혀 있었으며, 이렇게 '소멸 위험지역'에서 '성공한 귀농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이장인 홍주표 권사의 리더십과 주민들의 헌신적인 봉사의 결과라고 한다. 일

손도 부족한데다 판로마저 없어 죽어버린 농사를,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알리고 판로까지 확보함으로써 과일, 채소 농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주민의 얘기가 감동이었다.

체험을 마치고 토종닭 백숙과 함께 이곳에서 재배한 채소, 열매 등으로 오찬을 했으며, 이어 남성성가단원 이덕희 권사의 은혜로운 하모니카 연주가 있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면서 박동호 장로는 "광림의 일꾼 홍주표 권사를 이곳으로 귀농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소멸 위기의 산골마을을 소생케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며, 오늘 우리가 이곳을 체험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혜의 증거"라고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2대의 교회 버스 안에서 참석자들은 하루 동안 은혜받은 일들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으로써 하계수련회를 마무리했다.

구본홍 권사(남성성가단)

## 한결같은 모습과 밝은 미소로 13년 동안 섬겨

###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봉사자 - 한윤희 권사



2024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을학기가 지난 9월 3일 개강했다.

수강하는 성도들은 이사야서를 통해 은혜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공부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교회 로비에 들어서게 되면 공부할 교재와 과제를 챙긴 성도들이 모두 향하는 곳이 있다. 바로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봉사자들이 나눠주는 채점된 과제물을 받으러 차례로 줄을 선다.

화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에 발걸음할 때마다 늘 마주하게 되지만, 정작 많은 성도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의 봉사단은 생소하다.

13년 동안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봉사자로 섬기면서 늘 한결같은 모습과 밝은 미소로 성도들에게 나눔의 봉사를 하는 한윤희 권사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봉사단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봉사자들은 성경 공부 시작 전인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미리 모여 성도들이 오기 전 교재와 과제물을 본당 로비에 잘 정리를 해 놓습니다. 10시에는 정병무 장로님과 봉사자들이 함께 20분 정도 예배를 드린 후, 성도들이 한 주 전 제출해 채점해 놓은 시험지를 교구별로 나누어 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는 식사를 하고 당일 오전에 받은 과제물과 지난주 저녁반 과제물, 통신반 과제물을 채점해 놓고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저녁반을 위해 잘 정리해 둡니다.

**봉사를 하면서 받은 은혜는?**

미국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하다 귀국해 광

림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봉사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를 계기로 2012년부터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봉사단은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격려하며 위안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여서, 저는 늘 이곳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강의 내용을 공부하며 정성스럽게 제출한 과제물을 채점하며 늘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봉사단으로 소망이 있다면?**

가끔 과제물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잊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찾아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정성껏 써오신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꼭 교구, 고유번호, 성명을 기재 후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안타깝게도 트리니티가 중단됐었는데 그 여파로 트리니티 자원봉사자들이 크고 작은 이유로 봉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생겼어요.

최근에는 새로 들어오는 분이 없다 보니 적은 인원으로 봉사하기 조금 벅찰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앞으로 트리니티 봉사단으로 함께 봉사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봉사 문의 : 정병무 장로 (010-7200-6685)

박희윤 기자



# 광림교회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웨슬레회장단

9월 22일(주일), 애찬관에서 37개 남선교회 웨슬레선교회 연합 모임



레선교회원들의 믿음의 신앙이 바울, 디모데, 스테반선교회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디모데, 스테반 후배들이 선배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만든 자리이다. 앞으로도 모이기에 힘쓰고 선교의 역량을 키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웨슬레선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증인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광림교회 성장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남선교회 웨슬레회장단 모임이 9월 22일(주일) 3부 예배 후, 지하 1층 애찬관에서 부부 동반으로 열렸다.

조성한 목사(목회행정기획실)는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삼하 19:31-3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를 위해 앞장서 온 웨슬레선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바르실래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기는 다급한 순간에도 다윗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극진히 보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왕궁에 복귀했을 때 자신보다는 그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부탁하며 다음 세대의 축복을 구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후손들이 번성해지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

었다. 하나님 나라와 광림 재단을 위해 귀하게 헌신하는 웨슬레선교회 덕분에 광림교회가 세계 감리교회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복의 중심이 되어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임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인사 말씀을 전한 임시호 권사(남선교회 웨슬레센터장)는 "믿음으로 주신 사명에는 은퇴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 박기연 장로는 "웨슬

제2부 음악회에서는 첼리스트 임경원 권사(갈릴리성가대 오케스트라)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은혜롭게 연주했고 강동진, 강주호 솔리스트(갈릴리성가대)의 'The Lord's Prayer'가 이어지며 큰 기쁨을 선사했다. 광림엘리스 찬양단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외 하모니카 찬양 메들리와 조태영 권사(남선교회 웨슬레부센터장)의 특송으로 분위기는 한층 북돋워졌다.

애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 퀴즈와 경품 추첨 등을 함께 하며 첫 번째 웨슬레회장단 연합 모임을 마쳤다.

유병권 기자

## 토요일 성경 교육 프로그램

츄즈라이프, 어번던트라이프, 유앙겔리온 전도학교

광림교회는 지난 9월 21일(토) 가을학기 <토요일 성경 교육 프로그램> 츄즈라이프, 어번던트라이프, 유앙겔리온 전도학교를 개강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도록 도와준다.

**츄즈라이프 <구약의 맥>**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특정인이 소유할 수 없다. 하늘의 태양이 온 땅의 생명에게 고루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읽혀져야 한다. 성경을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은 단연 성경통독일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경을 가까이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제대로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츄즈라이프를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배우고자 합니다.

10주 동안 토요일마다 구약의 맥 강의를 통해 한 주간 읽을 성경을 요약하고, 주중에 SNS를 통해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자 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김덕민 목사

**어번던트라이프 <기독교 부흥 역사>**  
교회의 첫 시작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기쁨 부으심과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에게 감동된 사람들로 인해, 특히 베드로의 단번의 선포로 인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탈종교화의 시대로 보기도 하며,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를 쉽게 볼 수 없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정말로 멈춰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며, 당신의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계시하셨습니다.

어번던트라이프를 통해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100여 년 전 한 반도에서 일으키셨던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발자취를 밟으며, 이 시대에서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섬겼던 하나

님,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성령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정우 목사

**유앙겔리온 전도학교**  
유앙겔리온 전도학교는 한 층 더 믿음의 성장을 위해 도전하는 전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토의와 토론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복음 제시 방법과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한 영혼을 품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도는 새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나와 한 번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도학교에서는 전도자의 임무는 어디까지인지, 새신자를 품고 전도 활동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전도의 완성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전도라는 지상 명령을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참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 박영균 목사



프로그램	일정	시간	장소	강사
츄즈라이프	9월 21일 ~ 11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12:00	웨슬리관 5층 세미나실	김덕민 목사
어번던트라이프			두란노강의실	김정우 목사
유앙겔리온 전도학교	9월 21일 ~ 10월 12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12:00	나사렛성전	박영균 목사

